

고코쿠지 절 본당

본당(법당)은 고코쿠지 절의 정신적 중심이며, 부처인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본당은 팔작집 지붕 양식의 이층 지붕, 장식기와, 처마를 받치는 복잡한 목제 가로대가 특징적입니다. 현재의 건축물은 1797년에 세워졌습니다.

본당 내에는 금색의 본존 석가모니상을 비롯한 수많은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은 연꽃대좌에 앉아있고, 불교의 수호자인 사천왕상이 양쪽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천장에는 본당을 지키는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당 뒤편에서 명상 도장인 선당까지 회랑이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산당까지 제 2 회랑이 이어집니다. 개산당에는 일본의 선종 보급에 헌신한 승려 신치 가쿠신(心地覺心, 1207~1298년)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쿠신 선사는 13세기 후반 대부분을 고코쿠지 절의 주지를 지냈습니다. 가쿠신은 고다이묘 천황(재위 1318~1339년)이 사후에 부여한 칭호인 훗토 엔묘 국사(法燈円明 国師, 완전히 깨어난 법등의 국사라는 의미)라고도 불립니다. 선사의 장지 위에 건립된 개산당에는 가쿠신의 목조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건축물은 1823년에 세워졌습니다.

선당과 개산당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본당은 사찰 행사 때만 공개됩니다. 정면의 문 틈새로 본당 내부를 엿볼 수 있으며, 경내를 산책하면서 세 불당의 외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